

파룬궁수련과 우리나라의 법률

우리나라 헌법에는 신앙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하거나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신앙자유권인 권리의이므로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사교조직을 단속하고 사교활동을 방비, 징벌에 관한 결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사교조직을 조직하고 리용한 범죄안건을 처리할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해석” (1),(2)의 전편문장내용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파룬궁이란 석자를 찾아볼 수 없다.

2.公安部에서 하달한 “사교조직을 인정, 단속할데 관한 약간의 문제의 통지”에는 14 개 사교조직을 제출했는데 그속에는 파룬궁이 없다.

3. 1997 년에 공포한 형법 제 300 조는 1999 년부터 박해를 받은 파룬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 헌법에는 신앙자유와 언론자유가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률이므로 헌법과 저촉되는 어떠한 법률, 법규는 모두 법률효력이 없다. “파룬궁은 사교조직이다.”란 글자는 단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하달한 내부통지에만 있는데 이 내부통지는 법률의거로 삼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률기관, 사법기관은 종래로 법률내용과 사법해석에 파룬궁을 사교조직에 넣지 않았으며 형법 제 300 조에 비추어 “사교를 리용하여 법률을 파괴한 실시죄”로 파룬궁수련생을 기소하는 것은 법률적용을 할수 없는 착오이다.

신운국제예술단은 시드니에서 원만히 결속



지난 4 월 26 일 저녁, 신운국제예술단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마지막 한차례 공연은 관중들의 우리같은 박수소리속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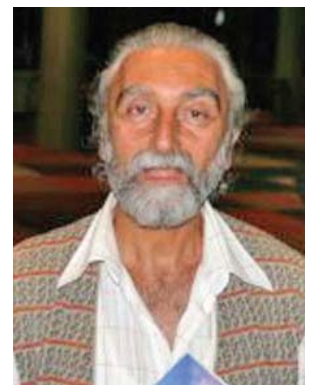
오스트레일리아 작곡가, 가수, 작가 하드치티(왼쪽 사진)는 《신운은 단순한 예술공연이 아니라 바야흐로 일어나고있는 문예부흥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고무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우수한

문화를 잃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의원 마리(오른쪽 사진)는 《매우 아름답고 정채로운 신은공연은 우리들에게 도덕을 준수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하늘이 준 우리 세계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근본인 우리 생명존재의 의의를 다시 인식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련방의회 의원 패트릭(오른쪽 사진)는 《신운공연은 세계에 드리는 위대한 예술이며 가장 우수한 중국문화의 위대한 본보기입니다.》라고 말했다.



점점 젊어지는 98 세 할아버지



대만 사법 의사였던 마제우 (马济宇)는(윗 사진) 올해 98 세이다. 10 년전 88 세가 되던 때부터 그의 몸은 극히 쇠약해져 심장병, 전립선 비대증, 뇨실금 등 각가지 병에 걸려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했으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모진 병마속에서 사는것이 죽기보다 못하다고 여긴 그는 자살하려고 했다. 마침 한 친구의 소개로 사회의무원이며 파룬궁수련생인 림봉국(林凤菊)이 그를 간호하게 되었다. 림봉국의 권고를 들은 마제우는 설수가 없어서 앉아서 파룬궁동작을 따라배우기 시작했다. 며칠동안 련공했더니 그의 온몸은 거뽀해졌다. 90 세에 가까운 그는 가부좌할때 몹시 아팠지만 매일 견지했다. 몇달후에 15 분, 나중엔 1 시간동안 견지할수 있었다. 이렇게 석달동안 련공한 그는 심장병약을 먹지 않았고 지팡이를 내버렸다. 다섯달 후, 그의 전립선비대증이 소실되고 매일 복용하던 수면제를 8 일만에 한번씩 복용했다. 8 개월 후,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편히 잘수 있었다. 이때로부터 그는 매일 “전법륜”책을 읽었고 련공을 견지했다. 이리하여 그의 병은 제거되고 건강해졌으며 인생의 행복을 느꼈다. 그는 《나는 올해에 98 세이지만 근 10 년동안 련공을 견지하니 점점 젊어집니다.》라고 감격되어 말했다.

마제우할아버지는 최근 몇년동안 미국에 세 번, 홍콩에 아홉번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싱가포르 등 나라에 가서 파룬궁을 널리 전하는 활동에 참가했다. 그는 《나는 나이가 많지만 세계각지로 다니며 세인들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잔혹한 죄행을 폭로하고 “파룬궁이 좋다.”는것을 알려줍니다.》라고 말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초불집회

지난 4 월 24 일 저녁, 미국 로스엔젤레스 수련생과 지지자들이 중공령사관앞에서 초불집회를 열고



“4.25”10 주년을 기념했고 박해로 사망된 동수들을 추모했으며 중공의 잔혹한 죄행을 폭로했다.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오영년이 집회에서 파룬궁“4.25”상방은 중공이 탄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나서 레를 들어 미국의 사례를 말했다. 《부쉬가 제 1 차취임선서를 할때 2 만 미국민중이 항의하러 갔지만 미국정부는 민중을 탄압하지 않았고 부쉬가 제 2 차취임선서를 할때 어떤 사람들은 관을 들고 항의했지만 미국정부는 여전히 민중을 탄압하지 않았다. “인민공복”이라고 자칭하는 중공은 “주인”이 “하인”과 화해롭게 몇마디 말을 한후 곧 탄압하기 시작한 이것은 중공의 폭정의 본성을 돌출히 드러냈다.

미국우주총서분기추진실험실 과학자이며 파룬궁수련생인 구정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련자가 버리는 것은 세속의 명리이기에 인간의 정권에 대해 흥취를 느끼지 않는다. 이 10 년동안 파룬궁은 어떠한 정권도 세울 것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다만 박해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파룬궁은 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장대해져 세계 80 여개 국가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은 “썩썩런”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연변박해소식

■ 최근에 랍치되었던 최홍화(崔红花)、김영애(金英爱)、황미화(黄美花)、지영숙(池英淑) 등 4 명 파룬궁수련생들은 지난 4 월 29 일 아침에 장춘으로 압송되었다.

■ 룡정시파룬궁수련생 전창률(全昌律)은 근간에 룡정시간수소에 감금되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악인들은 즉각 박해를 중단하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기 바란다.

